

# 北 도발 온도차...與 “치명적 방안 이행”·野 “안보위기 자초”

### 북한 오물 풍선 살포 엇갈린 반응 국힘 “北 응분의 대가 치를 것” 민주 “국민들 전쟁 날까 불안”

3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과 관련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회의는 북한의 잇단 도발 행위에 대해 “당정은 김정은 일가에 가장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방안을 강구해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하며 자초한 안보 위기라고 비판했다.

국민회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은 본인들이 저지른 도발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은 정상 국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몰상식한 행위이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라며 “지난 5월 27일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북한 주민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은 즉각 저열한 도발 행위를 멈추고 재발 방지의 뜻을 밝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어도 함참 넘었다”며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할 것이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 오물 풍선 도발의 1차적 책임은 김정은 일가와 추종 세력에게 있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위장평화소를 위해 굴종적 대북관과 저자세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은 굴종적 대북관에서 벗어나,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중 사무총장은 “북한의 저질 도발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의 모든 수단을 옵션

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짜우지 않고 이겨야 하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가장 완벽한 안보”라며 “대북 전단 살포로 촉발된 대남 오물 투척에는 양자에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 대응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추가 대북 제재 방향으로 간다는 데, 왜 긴장을 격화시키고 안보를 스스로 위협하느냐. 그러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전단을 보내지 못하게 돼 이것 때문에 생기는 긴장은 상당히 완화됐다는 점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며 “그런데 (전단 살포를) 방지할

뿐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는 듯한 정부 태도가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면서 (이에 따른) 북한의 대응 조치는 이미 예상된 바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대응이 ‘잘됐다, 이번 기회에 북한을 더 공격해 남북 긴장을 격화시키자’, ‘안보 위기를 조장해 정권의 불안을 해결하자’라고 생각한다면 국정을 감당할 자격이 있겠냐”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발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로, ‘윤석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모두 걱정이 태산”이라며 “남북 대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오가는 건 오물 풍선에 대북 전단”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회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힘 김용태 “채상병 사건 납득할 설명 필요”

### 비대위원... “국방부·대통령실이 결자해지 해야”

국민회의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3일 해병대 채모상병 사망 사건 처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볼 때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회의는 21대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을 막아냈다”며 “그러나 22대에서 공수처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결자해지해달라”며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의 관련 조사 결과 및 경찰 이첩 내용을 결재한 뒤 하루도 안 돼 반복한 과정이 적언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복 배경으로 언급된 해병대 수사단의 ‘월권’ 문제에 대해서도 “국방부 조사본부 재조사해 경찰에 이첩한 결과 역시, 기초 조사 및 이첩 방식은 (해병대 수사단과) 같아 보인다. 시정하고 자했던 것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유가족과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떳떳해야 민주당의 위선과 독재적 행태가 국민의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강수훈 시의원, 의장 선거 이색 출사표

###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출마... ‘의장 설명서’ 소책자 발간

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후보로 나서는 40대 초선 의원이 ‘의장 설명서’라는 책을 펴내면서 독특한 출마 선언을 해 관심이 모아진다. 기존 ‘세 결집’에 집중하던 의장 선거에서 벗어나 책을 통해 의장의 역할에 대해 되돌아보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강수훈 의원(민주·서구1)은 의장 출마의 변을 담은 ‘의장 설명서 10문 10답’ 소책자를 발간했다. 책은 ‘의장, 왜 바빠?’, ‘의장 선거, 왜 토론 한번 안 해?’, ‘반복되는 의장 선거 패행 막을 방법 없나?’, ‘후반기 의장, 왜 중요한가?’, ‘초선은 의장하면 안 돼?’, ‘의장이 갖춰야 할 덕목은 뭔데?’, ‘인상 깊게 본 의장이 있다면?’, ‘정치하면서 느꼈던 보람, 한가지를 소개한다면?’, ‘의장에서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도대체 강수훈은 왜 정치를 해?’ 등의 질문을 주제로 자문자답하는 형식이다.

강 의원은 자신을 제외한 광주시의원 22명 모두에게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쪽지와 함께 이 책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 의원은 이번 의장 경선에서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는 등 ‘젊어인’ (젊은 정치인)의 색다른 사고방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강 의원의 ‘파격 제안’에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상무위원회를 열고 토론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토론회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 등은 광주시당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후반기 의장단 후보자 신청을 받아 같은달 8일 의장·부의장 선거를 치른다. 현재까지 강 의원을 포함해 초선에는 박수기 의원(민주·광산구5), 재선에서는 박미정(민주·동구2)·신수정(민주·북구3)·심철의(민주·서구4)·조석호(민주·북구4) 의원 등이 의장 출마에 뜻을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국힘, 전대 룰 개정·지도체제 논의 ‘속도’

### 선관위·당헌당규개정특위 구성...황우여 “올림픽 전에 전당대회”

국민회의는 3일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와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비대위 의결에 따라 선관위는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서병수 전 의원이, 부위원장은 성일중 사무총장이 각각 맡았다. 당내 선관위원회에는 박종진·양종아·이재영·이형섭·이승환·김수만·곽관용 등 7명이, 외부 선관위원회에는 김연주 시사평론가, 강건에 변호사가 임명됐다.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에는 3선의 여상규 전 의원이 임명됐고 최형두·박형수·이달희 의원, 오

신환 당협위원장, 김범수 전 당협위원장, 정회욱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위원을 맡았다. 선관위와 특위가 구성됨에 따라 전대 개최 시기, 전대 규칙(룰), 지도체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규택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룰과 관련된 부분은 특위에서 다룰 것”이라며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을 비롯해 일정, 홍보 등의 선거관리 업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대는 파리 올림픽 개막일(7월 26일) 직전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전당대회를 가급적 올림픽 경기 시작 전에 마쳐볼까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집중적,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헌당규 특위는 당원투표 100%로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일반 국민 여론 조사를 반영할지, 얼마나 반영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의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할지도 관심이다. 단일체제는 전대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따로, 집단체제는 단일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을 뜻한다. 광 수석대변인은 집단지도체제 논의 여부에 대해 “특위에서 지도체제 부분을 다룰지 논의할 예정이다. 아직 특위에서 ‘지도체제를 정한다’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야기된 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탁**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